

무용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이 동 숙*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연구의 결과

IV.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난 후 그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평가 하게 되며,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에 대해 해석을 하게 된다. 만약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우수한 능력을 가졌거나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또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실패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능력 부족이나 노력 부족 등 다양한 실패 원인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행위나 그 행위 결과의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다양하며, 이후 행동은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하는 실패는 이후 행동에 대한 무력감을 유발시켜 과제 수행의 손상과 동기적·정서적·인지적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한다. 특히 어떤 목표 과제에 대한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경우 무기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²⁾ 무용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평가되는 실패는 모든 무용전공자들이 경험하는 현상일 것이며, 실패 이후 무용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실패는 자신이 수행하는 무용에 대한 능력이 열등하다는 증거로 믿기 때문에 보다 쉬운 동작을 선택하고, 낮은 난이도의 무용 공연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Kim과 Clifford(1988)는 실패 후에 나타나는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건설적 실패경험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들 중 하나로 실패에 대한 내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³⁾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은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개인이 실패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에 따라 서서히 형성되는 안정적인 성격특성

* 세종대학교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주임교수, anatis1@hanmail.net

1) 이보슬(2011),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 지각요인 탐색,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정윤경(2007), 목표지향성이 실패 후 아동의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 pp.187.

3) 이나리(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실패내성이 무용소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으로 정의되어 왔다.⁴⁾

지금까지 학구적 실패내성을 다룬 연구들은 실패내성이 학습동기,⁵⁾ 학업 효능감,⁶⁾ 학교적응⁷⁾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행과 관련된 성적하락 극복,⁸⁾ 성취노력,⁹⁾¹⁰⁾ 정신력 강화¹¹⁾¹²⁾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¹³⁾¹⁴⁾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실패 경험이 이후 행동에 무기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즉 실패과정에서 발달된 내성이 실패와 관련된 손상에 대처하고, 오히려 후속적인 과제수행을 증진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건설적 실패이론(Constructive Failure Theory)으로 발전시켜왔다.

무용의 수행과 관련된 연구들은 무용수행의 실패에 따라 무기력이나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무용수들은 공연 시에 외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습 중에는 뛰어난 기량의 테크닉을 발휘하면서 공연 시에 무대 위에서는 실수를 연발하여 그 공연을 실패로 이끄는 무용수들이 종종 있다.¹⁵⁾

무용공연은 수많은 시간동안의 연습의 결과 쌓은 예술적, 미적 동작기술의 표현이다. 무용공연은 다양한 조명을 포함하여 많은 도구적 장치로 구성된 무대에서 특수한 물리적 환경과 관객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¹⁶⁾ 무대에서의 공연하는 무용수는 본인이 의도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안무, 관객과의 호흡 등이 필요하다. 한미경과 유정인(2011)에 따르면 무용수는 공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공연 전에 심하게 긴장하고, 공연전후를 기점으로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다양한 부분에서 반복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¹⁷⁾¹⁸⁾

무용전공자들의 경쟁수준이 높아질수록 실패의 경험 또한 많아질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패경험에 따른 심리적 손상을 발생시키고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무용전공자들의 실패경험에 대한 체계를 이해한다면 과제를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4) Clifford, M. M.(1984), Thoughts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 p.111.
5) 주지은(1999),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정현정(2012), 초등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실패내성과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채호숙(2008), 초등학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김영빈(2011), 학업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패내성 특성 및 성적하락 극복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8(1), p.33.
9) 장수영(2007), 학업 우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조한익, 조윤희(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이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 p.214.
11) 김영희, 강혜원(2005),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學生生活研究』 20, p.2.
12) Renzulli, J. S.(2000), The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s a paradigm for school reform,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9(2), p.106.
13) 이영희(2007), 가족 및 개인 변인이 고등학교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성창훈, 박상혁(2013), 실패내성의 스포츠수행 예측 안정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 p.117.
15) 김계숙(2000), 전공무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무용학회논문집』 28, p.98.
16) 문영, 김미숙(2003), 무용수의 공연 불안 원인 분석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5, p.192.
17) 김정우(1997), 무용수의 심리불안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박미진, 강현숙, 김숙희(2005), 무용전공 여대생의 심상연습이 공연 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 p.285.

무용공연 및 학습 상황에서의 실패내성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동기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용공연 상황에서의 실패와 관련된 내성성향과 무용 몰입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무용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무용 공연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몰입(flow)이다. 특히, 공연 분야에서 몰입은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최상수행(peak performance)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수행자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필수적이고, 성공적인 공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무용몰입은 무용수가 무용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하며,²¹⁾ 무용 수행과 심리적 과정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²²⁾ 또한, 무용수가 몰입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게 되고, 관객들에게 감정과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어 무용작품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장효진(2010)의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들이 무용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여 공연을 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패와 몰입을 연구한 오경택과 이철진(2008)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몰입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김은희(2014)는 실패에 대한 내성이 학습의 몰입을 이끌어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 공연에 대한 실패 내성과 무용 몰입의 관계를 검증하여 보다 성공적인 무용 공연의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무용공연에 참여하고 전공하는 전공생들이 지각하는 실패내성이 성공적인 무용 공연의 근거인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무용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무용수를 대상으로 무용 공연이나 학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한 내성 성향을 집단에 따라 알아보고,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 및 보완하고, 무용 몰입 척도를 활용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372명의 무용 전공자들이었다. 이들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으며, 고등학생이 193명, 대학생은 179명이

19) 이나리(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실패내성이 무용소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조영주, 이강현(2010), 무용몰입의 개념구조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21, p.188.

21) 송미혜(1998), 직업무용수의 공연시 몰입경험 정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2) 최정자, 김형남, 심현화(2011), Loehr의 이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5, p.40.

었다. 또한 한국무용이 116명, 현대무용이 120명, 발레가 136명으로 총 372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측정도구

가. 무용 실패내성의 측정

무용 전공생들의 실패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패내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김아영(1997)이 개발하였으며, 오희숙(2002)과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성창훈, 박상혁(2012)이 스포츠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타당화한 바 있다.

무용 실패내성 척도는 실패 후 과제난이도, 실패 후 감정, 실패 후 행동의 3개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패내성 척도의 수정과 보완이 제대로 되었는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표 1〉 실패내성 설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약

문항번호	요인명칭 및 부하량		
	실패 후 행동	실패 후 난이도	실패 후 감정
A2	.836	.027	-.012
A3	.814	.020	.026
A4	.754	.007	.124
A1	.705	.040	-.035
A10	.014	.835	-.031
A9	-.098	.747	.076
A11	.034	.638	.054
A12	.267	.593	-.055
A6	-.009	-.005	.838
A7	-.092	.061	.809
A5	.252	-.141	.653
A8	.000	.112	.555
설명변량	39.194	15.039	14.179
누적변량	39.194	54.233	68.412
고 유 치	4.903	1.805	1.702
신뢰계수	.874	.816	.817

KMO 측도=.846

Bartlett's 구형성 검증=2039.988, Sig.=.000

무용 공연 및 학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용 실패내성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3개 요인 12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KMO 측도에서는 .846으로 나타나 유효하였으며,²³⁾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유의도가 확인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3개요인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모두 .555~.836으로 나타났으며, 탐색된 하위문항들

23) 양병화(2006), 『마케팅, 사회 및 행동과학을 위한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내적 일치도 계수 분석결과에서도 각각 .816~.874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Alpha 계수는 .843로 나타나 무용 실패내성 척도는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나. 무용몰입의 측정

무용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영주(2010)가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무용몰입 하위변인은 자기 목적적 경험 5문항, 활동과 인식의 통합 3문항, 최면 유사 상태 4문항, 성취감과 자신감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표 2〉 무용 몰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번호	요인명칭 및 부하량		
	자기목적적 경험	최면과 유사상태	성취감과 자신감
D3	.887	-.113	.005
D4	.861	.059	.129
D2	.785	.090	.055
D5	.733	-.005	-.120
D1	.570	-.122	-.117
D14	-.032	.956	.087
D15	.009	.731	-.150
D13	.087	.726	-.035
D12	-.004	.590	-.085
D17	-.015	-.034	.858
D18	.064	-.048	.807
D16	.046	.085	.672
D19	.087	.217	.569
설명변량	46.723	8.878	6.823
누적변량	46.723	55.601	62.424
고유치	9.345	1.776	1.365
신뢰계수	.878	.879	.860

KMO 측도=.932

Bartlett's 구형성 검증=4689.385, Sig.=.000

무용 공연 및 학습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용 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5개 요인이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3개 요인의 13문항이 나타났다.

또한 KMO의 측도에서는 .932로 나타나 유효하였으며,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검증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p < .05$ 의 유의성이 확인되어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들 4개요인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569~.956으로 나타났으며, 나타난 하위문항들의 내적일관성 계수 분석 결과에서 각각 .860~.879이상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전체 Alpha 계수는 .845로 나타나 무용 몰입 척도는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의 절차대로 분석하였다.

첫째, 무용 실패내성과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축분석과 직접 오블리민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나타난 하위문항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에 결과 피벗(pivot)테이블로 제공되는 변량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단계적 투입 방식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모든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집단에 따라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무용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372명의 무용 전공자들을 편의표본 추출방식으로 표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몰입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수를 생성하여 결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무용 실패내성의 학교 급의 차이는 실패내성이 발달적 차이를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1.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고등학교 대학교 집단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학교 급에 따른 실패내성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패내성 변수	학교 급	평균	표준편차	N
실패 후 행동	대 학 교	3.8692	.64855	193
	고등학교	3.5573	.70998	179
	전 체	3.7191	.69561	372
실패 후 과제난이도	대 학 교	3.3964	.77452	193
	고등학교	3.2975	.71930	179
	전 체	3.3488	.74909	372
실패 후 감정	대 학 교	3.8549	.73929	193
	고등학교	3.5433	.77840	179
	전 체	3.7050	.77322	372

먼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 후 행동과 실패 후 과제난이도 및 실패 후 감정 요인에서 대학생 무용 전공자들이 고등학교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실패내성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교 고등학교 집단 모두 실패 후 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실패 후에 과제 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 급에 따른 실패내성의 다변량 분석 결과

실패내성 변수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실패 후 행동	9.035	1	9.035	19.608	.000
실패 후 과제난이도	.908	1	.908	1.621	.204
실패 후 감정	9.019	1	9.019	15.681	.000

Wilks' Lambda $p < .05$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즉 다변량 분석결과 발달적 차이에 따라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량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집단에 따른 실패내성의 차이는 실패 후 행동과 실패 후 감정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 집단이 고등학교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실패내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패 후 과제난이도 요인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학교 급에 따른 무용 몰입의 차이

학교 급에 따른 무용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집단에 따른 무용 몰입의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학교 급에 따른 무용몰입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몰입 변수	학교 급	평균	표준편차	N
자기목적적 경험	대학교	3.5430	.85139	193
	고등학교	3.5296	.70294	179
	전체	3.5366	.78246	372
최면과 유사상태	대학교	2.8484	.99544	193
	고등학교	3.1383	.87735	179
	전체	2.9879	.95034	372
성취감과 자신감	대학교	3.5402	.81849	193
	고등학교	3.5126	.77136	179
	전체	3.5269	.79521	372

먼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면과 유사한 몰입 상태와 요인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들이 높은 몰입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급에 따른 무용몰입의 다변량 분석 결과

몰입 변수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자기목적적 경험	.017	1	.017	.027	.869
최면과 유사상태	7.801	1	7.801	8.819	.003
성취감과 자신감	.071	1	.071	.111	.739

Wilks' Lambda $p < .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 급에 따른 무용 몰입은 최면과 유사상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집단이 대학교 집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자기목적적 경험과 최면과 유사상태 요인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관계

무용전공자들이 지각하는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실패내성 요인과 무용 몰입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상관관계 결과

변 수	실패 후 행동	실패 후 과제난이도	실패 후 감정	자기 목적적 경험	최면과 유사상태	성취감과 자신감
실패 후 행동	1	.393**	.393**	.450**	.173**	.446**
실패 후 과제난이도	.393**	1	.310**	.203**	.184**	.294**
실패 후 감정	.393**	.310**	1	.133*	.052	.095
자기 목적적 경험	.450**	.203**	.133*	1	.438**	.607**
최면과 유사상태	.173**	.184**	.052	.438**	1	.512**
성취감과 자신감	.446**	.294**	.095	.607**	.512**	1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실패 후 행동은 모든 몰입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성취감과 자신감($r = .446$)의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실패 후 과제난이도는 성취감과 자신감 몰입($r = .294$)에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실패 후 감정 요인은 최면과 유사상태 및 성취감과 자신감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패내성을 예언변수로 설정하고 몰입을 준거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목적적 경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패 후 행동 실패내성은 자기목적적 경험 몰입에 20.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면과 유사상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패 후의 과제 난이도와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패 후 과제난이도는 3.4%, 실패 후 행동은 1.2%로 나타났다.

(표 8) 무용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선택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언변인	R ²	R ² C	Beta	F
자기 목적적 경험	실패 후 행동	.202	.202	.450	93.693***
최면과 유사상태	실패 후 과제난이도	.034	.034	.137	13.020*
	실패 후 행동	.046	.012	.120	8.912*
성취감과 자신감	실패 후 행동	.199	.199	.432	92.106***
	실패 후 과제난이도	.216	.017	.163	50.795**
	실패 후 감정	.229	.013	.125	36.371*

따라서 실패 후 과제난이도와 실패 후 행동이 최면과 유사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4.6%의 설명변량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로 성취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내성은 실패 후 행동(19.9%)과 실패 후 과제난이도(1.7%) 및 실패 후 감정(1.3%)의 3가지 실패내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실패 후 감정 요인은 상관분석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3개의 실패내성은 22.9%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IV. 논의와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정기적으로 무용 공연에 참가하고 있는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무용 공연에 대한 실패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실패내성을 통해 알아보고, 실패내성과 성공적인 무용 공연을 위한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무용을 전공하는 집단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무용을 전공하는 대상에 비하여 실패 후에 적극적인 무용 수행을 보이며, 실패후의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무용 전공자들이 대학교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실패내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한미경과 유정인(201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무용전공자들이 중학교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실패내성의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미선(2015)는 성별에 따라 학교 급의 실패내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남학생은 고등학생의 실패내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중학교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또한 주지은(1999)의 연구에서 고학년일수록 실패내성이 높다는 결과는 제시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장수영(2007)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실패내성을 보이는 것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고 조성일(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 급에 따른 실패내성의 차이를 보고하지 않았음으로서 대상과 환경에 따라 실패내성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무용 전공자들은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무용 공연에서의 경험하는 실패에 대한 극복 능력이 낮으며, 잦은 공연과 공연에 대한 숙달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이 실패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은 공연의 경험이 실패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성공적인 무용 공연은 관중의 반응, 동작 구성의 숙달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실패에 대한 인식은 공연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를 지각하는 환경과 상황 등 조건들에 의해 내성이 변화한다는 송달호(2002), 이수경(2010)등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편 무용 몰입에 따른 학교 급의 차이 분석에서는 최면과 유사상태 요인에서 고등학교 무용전공자가 대학교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몰입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김형섭(201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무용 전공자들이 대학교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높은 몰입을 보여주어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지연(201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무용 전공자 간 몰입의 차이 없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자들은 입시와 기본기 및 재미 위주의 공연을 하면서 몰입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용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 분석결과 자기목적적 경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면과 유사상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패 후의 과제 난이도와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내성은 실패 후 행동과 실패 후 과제난이도 및 실패 후 감정의 3가지 실패내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정현정(2012)은 실패내성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장신혜(2015)의 연구에서도 실패에 대한 극복행동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무용 공연 실패에 대한 건설적 혹은 능동적 대처 태도는 무용 몰입을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은희(2014)의 연구에 의하면 실패내성은 몰입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경영학 분야에서의 실패와 몰입의 관계를 검증한 오경택과 이철진(2008)의 연구에서도 실패와 몰입은 실패 후 행동과 해석에 따라 직무와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공연에서의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용은 계량적, 양적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없다. 즉 객관적인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만큼 실패에 대한 내성이 높을 경우 실패 후에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원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패내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신뢰도와 타당도는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4개 문항을 포함하는 3개 요인의 하위 구조가 나타났다. 이는 실패 후 행동, 실패 후 과제 난이도, 실패 후 감정의 3개 요인이었다. 또한 무용 몰입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활동과 인식의 통합 요인과 고도의 주의집중 요인이 요인부하량과 하위 문항의 개념적 불일치로 인하여 삭제되어 3개요인 13문항으로 나타났다. 무용 몰입의 3개 요인은 자기 목적적 경험, 최면과 유사상태, 성취감과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변수를 생성하여 학교 급에 따른 실패내성과 무용몰입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 급에 따른 무용 실패내성의 차이검증에서는 대학생 무용 전공자들이 고등학생 무용 전공자들에 비하여 실패 후 지도교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던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실패 후 행동 요인에서 높은 실패내성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실패 후 나쁜 감정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조절하는 실패 후 감정 요인에서 높은 실패내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급에 따른 무용 몰입의 차이 검증에서는 최면과 유사상태 요인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몰입 수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무용 실패내성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 목적적 경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면과 유사상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패 후의 과제 난이도와 실패 후 행동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성취감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내성은 실패 후 행동과 실패 후 과제난이도 및 실패 후 감정의 3가지 실패내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용 전공생들의 예술정체성이 실패내성과 무용 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 학년, 무용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1(1): 2.
- 김은희(2014). 초등학생의 기대지각, 정서조절, 실패내성 및 학습몰입의 구조적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섭(2010). 무용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들의 무용몰입과 무용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창훈, 박상혁(2012). 스포츠 실패내성의 구조 및 정신력과의 다차원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 94.
- 송달호(2002).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실패내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택, 이철진(2008). 중저가호텔 종사원의 서비스 실패 귀인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34: 71.
- 오희숙(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지연(2011). 무용지도자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무용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미선(2015). 중·고생의 성취수준별 학업소진 예측요인으로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부모의 학습관여 인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경(2010). 칭찬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실패내성에 끼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수영(2007). 학업 우수 청소년의 자기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신혜(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실패 능동적 대처행동, 학습 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선영(2012). 초등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 학습몰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일(2008). 청소년 운동선수의 경기력 예측변인으로서 실패내성.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주(2010). 무용몰입의 개념구조 탐색 및 척도 개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주지은(1999). 학습자의 동기적 특성과 학업 성취간의 관계 :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미경, 유정인(2013). 무용전공 중, 고등학생들의 실패내성과 내적동기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1): 187.
- Kim A, Clifford MM(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32.

논문투고일 2018. 11. 15

심사일 2019. 02. 20

심사완료일 2019. 03. 13

www.kci.go.kr

Abstract

The Effects of Dance Failure Tolerance on Dance Flow

Lee, DongSook

Professor of Global Education Institute,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lure tolerance, which was a substitution concept of failure experienced in dance performance, and dance flow, which was the standard of successful dance. Nine hundred and seventy two high school students specializing in dance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The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procedure. First, in ve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failure tolerance and dance flow according to the grade, the failure tolerance of college students was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dance flow was high. Als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ance tolerance and dance flow showed that failure tolerance promotes dance flow. Therefor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dance sites.

Keywords: Failure Tolerance(실패내성), Flow(몰입), Action after Failure(실패 후 행동), Similar to Hypnosis(최면과 유사상태), Emotion after Failure(실패 후 감정)